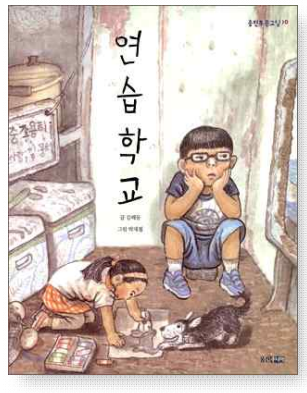
연습학교



★핵심 주제

• 가족 • 그리움

★활용 학년 및 성취 기준

	3-4학년군
성취 기준	[4국01-04] 적절한 표정, 몸짓, 말투로 말한다. [4국03-02]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나 행동이 드러나게 글을 쓴다. [4국03-04] 읽는 이를 고려하며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글을 쓴다. [4국04-01] 낱말을 분류하고 국어사전에서 찾는다. [4국05-02] 인물, 사건, 배경에 주목하며 작품을 이해한다.

★온 책 읽기 활동

읽기 전	읽기 중		읽기 후
활동 주제	소제목	활동 주제	활동 주제
• 낱말 기차 • 장면 예상하기	꼭대기 집	• 빗대어 표현하기	• 인물에게 편지 쓰기 • 인상 깊은 일 소개하기
	꼭대기 집, 삐악 암호	• 인물의 감정 파악하기	
	말향고래, 가자미눈	• 국어사전에서 찾기	
	연습학교, 아빠고래	• 내용 파악하기	
	너럭바위 인형극	• 극본 읽기	

읽기 전 활동	낱말 기차	학년 반 번
		이름

★ 앞 낱말을 보고 떠오르는 낱말을 이어서 써 봅시다.

(1) 연습 ➡ ㉠리코더 ➡ ㉠줄넘기 ➡ ㉠피아노

➡ ㉠힘들다 ➡ ㉠고생 ➡ ㉠땀 ➡ ㉠귀찮다

➡ ㉠보람 ➡ ㉠결과 ➡ ㉠뿌듯하다 ➡ ㉠성장

(2) 학교 ➡ ➡ ➡ ➡

➡ ➡ ➡ ➡ ➡

➡ ➡ ➡ ➡ ➡

★ 앞 낱말을 보고 끝말잇기 놀이를 해 봅시다.

바다 ➡ ㉠다슬기 ➡ ㉠기차 ➡ ㉠차비

➡ ➡ ➡ ➡ ➡

➡ ➡ ➡ ➡ ➡

➡ ➡ ➡ ➡ ➡

읽기 전 활동	장면 예상하기	학년 반 번
		이름

★ 이야기 속 장면을 보고 인물의 대화를 예상해 말풍선 안에 써 봅시다.

장면1

장면2

읽기 중 활동	꼭대기 집	학년 반 번
	빗대어 표현하기	이름

★ '꼭대기 집' 부분을 읽고 대상을 무엇에 빗대어 표현했는지 찾아 써 봅시다.

이야기 속에서 '~같이', '~처럼' 라고 표현한 부분을 찾아보세요.

대 상	빗대어 표현한 것
㉠ 엄마	㉠ 늘어진 스프링
장대에 매달린 물고기	빨랫줄에 걸린 옷
장대에 걸린 가오리	구멍난 팬티
부동산 아저씨의 머리	울릉도와 독도
골목	구불구불한 사다리

★ 밑줄 친 표현을 나만의 비유적 표현으로 바꾸어 써 봅시다.

어떤 사물을 보다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그것과 비슷한 다른 사물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을 '비유적 표현' 이라고 해요.

엄마가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u>늘어진 스프링 같다</u>.	㉠ 시든 화초 같다.
내장을 빼낸 곳이 뻥 뚫려 있는 가오리들이 정말 <u>구멍 난 팬티처럼</u> 보였다.	㉠ 하늘을 나는 방패연처럼
갓 입학한 1학년의 모습은 마치 <u>병아리 같았다</u>.	㉠ 새끼 강아지 같았다.

읽기 중 활동	꼭대기 집, 삐악 암호 인물의 감정 파악하기	학년 반 번 이름

★ ‘꼭대기 집’ 이야기 속 인물의 감정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써 봅시다.

나는 기분이 나빴다. 무턱대고 엄마한테 반말하는 것도 그렇지만, 우리를 15만원도 못 내는 지지리 궁상으로 본다는 것이 더 크다.	➡ 소희는 심심할 때 종종 그렇게 말장난을 쳤다. 내가 귀찮아서 내빼면 들어줄 때까지 졸졸 따라다닌다. “우아, 구멍 난 오빠 팬티도 걸렸네!”	➡ “히히, 울릉도하고 독도네?” 소희가 내 팔꿈치를 꼬집으며 쿡쿡 웃었다. 그러면서 슬쩍 부동산 아저씨 머리를 가리켰다. “풋.” 나는 입을 틀어막았다.
㉠ 불쾌하다	➡ ㉡ 귀찮다	➡ ㉢ 웃기다

★ ‘삐악 암호’ 이야기 속 인물의 감정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써 봅시다.

아빠가 떠난 후에도 엄마는 그 노래를 힘없이 흥얼거렸다. 엄마 노래를 듣고 있으면 자꾸 눈물이 난다. 엄마는 항구이고 아빠는 배인데, 그 배가 자꾸만 떠나가기 때문이다.	➡ “바보. 오빠가 돼 가지고 그것도 몰라?” “그럼, 넌 알아? 응? 응?” “고래가 입으로 바람을 후욱 부니까 파도가 생기지.”	➡ ‘아빠’란 말만 들어도 가슴이 멎는 듯 먹먹해지기 때문이다. 나중에는 눈앞까지 깜깜해진다. 소희는 그것도 모르고 아무 때나 아빠 얘기를 해 댄다.
㉠ 아빠가 그립다. 슬프다.	➡ ㉡ 어이없다.	➡ ㉢ 아빠가 그립고 보고 싶다.

읽기 중 활동	말향고래, 가자미눈 국어사전에서 찾기	학년 반 번 이름

★ '말향고래'와 '가자미눈'에 나오는 낱말의 뜻을 짐작하고, 사전을 찾아 짐작한 뜻과 의미를 비교해 봅시다.

낱말	짐작한 뜻	사전에서 찾은 뜻
표구 (38쪽)		그림의 뒷면이나 테두리에 종이 또는 천을 발라서 꾸미는 일.
가자미눈 (48쪽)		화가 나서 옆으로 흘겨보는 눈을 가자미의 눈에 비유하여 이르는 말.
연거푸 (48쪽)		잇따라 여러 번 되풀이하여.
바투 (54쪽)		두 대상이나 물체의 사이가 썩 가깝게.
뜨악한 (54쪽)		마음이 선뜻 내키지 않아 꺼림칙하고 싫다.
불현듯 (56쪽)		불을 켜서 불이 일어나는 것과 같다는 뜻으로, 갑자기 어떠한 생각이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나는 모양.

★ 위 낱말을 보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1) 위 낱말 중 사전에서 찾을 때 기본형으로 바꾸어 찾아야 하는 낱말은 무엇입니까? 기본형으로 바꾸어 써 보세요.

뜨악한 → 뜨악하다

(2) 위 낱말 중 국어사전에 세 번째 순서로 실린 낱말은 무엇입니까?

바투

(3) 위 낱말 중 하나를 골라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예 줄을 바투 움켜잡았다.

읽기 중 활동	연습학교, 아빠고래	학년 반 번
	내용 파악하기	이름

★ '연습학교' 부분을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1) '나'는 왜 연습학교를 만들면서 까지 학교에 가야한다고 생각했나요?

마을에 나쁜 소문이 돌아 엄마를 힘들게 할까봐.

너무 오랫동안 학교에 안 가면 정말로 가기 싫어질까 봐.

(2) 연습 학교는 어디에 위치해 있나요?

부두 맨 끝에 묶여있는 조그만 배

(3) 연습 학교의 1교시는 무슨 수업이었나요?

꾸미기 수업 시간

★ '아빠 고래'를 읽고 옳은 문장에 O표, 틀린 문장에 X표를 해 봅시다.

(1) 소희에게 읽어준 '꼬마 고래야, 안녕!'은 독일 동화이다. (×)

(2) 동화 속 앙리가 바닷가에 갔다가 발견한 산은 백두산이다. (×)

(3) 소희는 내가 읽어준 동화를 듣고 아빠가 그리워졌다. (○)

(4) 나와 소희가 탄 배가 썰물 때가 되어 부둣가에서 멀어져 있었다. (○)

(5) 뭉치의 짖는 소리를 듣고 마을 사람들이 나와 소희를 구조해 주었다. (○)

읽기 중 활동	너럭 바위 인형극	학년 반 번
	극본 읽기	이름

★ 인물에게 어울리는 표정, 몸짓, 말투를 상상하며 극본을 읽어 봅시다.

나 : (㉮) 내일 학교 간대. 엄마가!

소희 : (벌떡 일어나 앉으며) 진짜? 만세! 수연이랑 짝꿍 해야지!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제 이름은 오소희 입니다. 오소리는 절대 아닙니다.

나 : (쿡쿡 웃으며) 엥? 저러다 또 오소리란 별명 붙고 말지.

수연 :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며) 소희야~ 뭐해?

소희 : ㉯ (수연이의 손을 잡으며) 내일 엄마가 전학시켜준대!

수연 : (폴짝폴짝 뛰며) 야호!

(1) 극본을 읽을 사람을 정해 보세요.

나 → ( )

소희 → ( )

수연 → ( )

(2) '㉮'에 들어갈 인물의 표정, 몸짓, 말투는 무엇일지 상상하여 써 봅시다.

예 깜짝 놀라는 목소리로

(3) '㉯' 에서 소희가 지을 표정을 그려 봅시다.

읽기 후 활동	인물에게 편지 쓰기	학년 반 번
		이름

★ 이야기 속 인물을 한 명 골라 주고 싶은 선물을 그리고, 마음을 전하는 편지를 써 봅시다.

편지글 형식에 맞게,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자세히 써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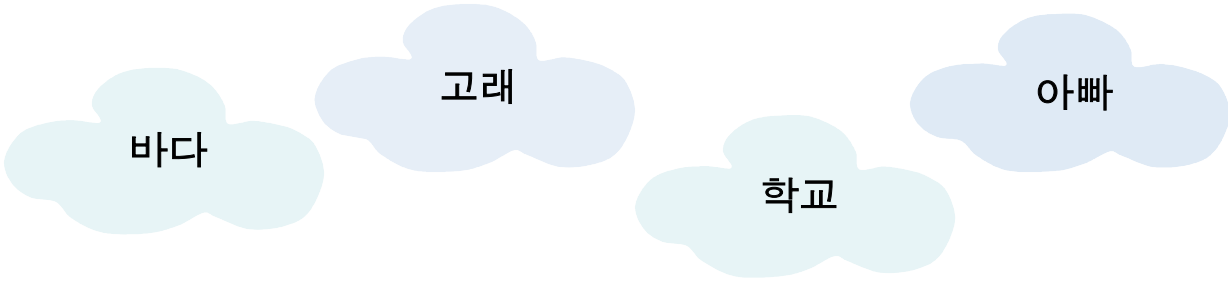
주고 싶은 선물

(　　)에게

(　　)가

읽기 후 활동	인상 깊은 일 소개하기	학년 반 번
		이름

★ 아래의 낱말 중 하나를 골라, 그 낱말과 관련된 인상 깊었던 경험을 떠올려 봅시다.



★ 떠올린 경험을 표 안에 정리해 봅시다.

언제	㉠ 학교에 들어가기도 전 어린 시절	무슨 일이 있었나요?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	왜 그런 마음이 들었나요?
어디에서	㉠ 안과 병원	㉠ 하얀 눈이 오는 날에 눈에 다래끼가 나서 수술을 했다.	㉠ 너무 무섭고 아팠다.	㉠ 수술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모든 상황이 무서웠다.
누구와	㉠ 아빠와			

★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인상 깊은 일을 글로 써 봅시다.

㉠ 학교에 들어가기도 전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눈이 퉁퉁 부은 날이 있었다. 엄마는 내 눈에 다래끼가 난 것 같다고 하셨다. 아빠는 곧장 나를 안과에 데려가셨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바로 수술을 하자고 하셨다. '수술이라니!' 태어나서 수술이 처음이었던 나는 너무 무서워 수술을 하는 내내 아빠의 옷깃을 잡고 엉엉 울었다. 간단한 수술이라 금방 끝났지만 그땐 1분이 한 시간 같았다. 수술을 마치고 병원 밖을 나왔을 땐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다. 아직도 소복이 쌓인 눈을 밟으며 걸을 때면 다래끼 수술을 마치고 아빠 손을 꼭 잡고 집으로 돌아오던 때가 생각난다.